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Apr. 19, 2026 (통권 1103호)



오늘의 말씀
“판단보다 깊은 사랑”

[요 13:34~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담임목사 정 석 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서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참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점점 더 판단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점점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분별력”이 사랑이 아니라 판단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판단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본문 강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장면의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간 직후입니다. 배신이 시작된 그 밤에,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보통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잘해주면 사랑하고 상처 주면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교회를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맞는 말을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정확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정확함은 사람을 설득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올바름의 기준에 모두에게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가르침으로 보는 사랑의 실재를 상고해 봅시다.

[고전 13:4~7]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μακροθυμεῖ]” ~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가 변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새벽예배를 통해 요한복음 심층 강해에서 세번 반복된 베드로의 부인은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없이 그의 의지가 담겨 있었던 행위였음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들은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심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Never ever”이라는 개념의 이중 부정으로 강력한 부정을 했고, 게다가 마지막에는 맹세(swear; 욱)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그 부인의 과정 속에 드러난 베드로의 교만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드러난 우월감 등의 태도를 통해 그의 바닥을 완전히 드러낸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거나 꼬치꼬치 따져 판단과 정죄로 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만회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가파오]를 묻는 질문에 [필레오]로 답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급기야 [필레오]로 질문을 낮추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 말이 거칠지 않습니다. 태도가 부드럽습니다.

우리는 성난 군중들이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예수님을 다그치는 모습을 봅니다.

[요 8:4~5]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과 예수님을 싸잡아 돌로 쳐서 무덤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엎드려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저마다 들고 있던 돌들을 내려놓고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 8:10~11]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진리를 타협하지는 않으십니다. 진리는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사람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를 위해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 일입니다만 제 큰 누님이 유치원생 손자를 차에 태우고 어떤 목사님을 픽업하러 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차에 타자마자 그 아이가 코를 쥐고, “목사님, 입에서 똥 냄새 나요.” 하더랍니다. 누님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누나가 캔디를 하나 꺼내 드리면서, “에구~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니시느라고 힘드시죠? 이거 하나 드세요.” 했답니다. 이것이 철부지 아이와 어른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런 온유함을 나타낼 만큼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엡 4:2] 모든 겹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옳게 행한다 해도 타인에게 무례히 행할 자격은 없습니다. 온유함은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알고자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첫 모습은 예수님께 아주 무례한 모습이었습니다.

[요 4: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자의 말이 맞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절대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를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존중하는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을 얻으셨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실패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다시 그들의 자리에 세워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 사랑에 대한 바울의 설명 중에 가장 기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λογίζεσθαι] 아니한다” 이 단어의 원형은 [로기조마이]인데, 여기에서 바로 영어의 to log라는 동사가 파생되었습니다.

“기록한다; 일지를 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잘못을 꼬박꼬박 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치부책에 꼬박꼬박 적어두었다가 반드시 보복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용서입니다.

[눅 23: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가장 큰 상처 속에서도, 자신을 경멸하고 상처를 입힌 그들의 잘못들을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만 사랑보다 판단이 쉬운가요?

판단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높일 수 있고, 내가 옳다고 느낄 수 있고,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렵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빠르고 사랑은 느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틀린 것부터 먼저 봅니다.

부족함부터 먼저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가능성부터 먼저 보십니다. 영혼의 회복을 먼저 보십니다.

베드로의 모든 배신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를 “배신자”로 봅니다. 그러나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베드로를 돌아보셨던 예수님의 시선은 분명 “회복될 제자”로서의 그를 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더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더 많이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나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이 먼저 보이는가?

~ 나는 판단이 더 편한 사람인가, 사랑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인가?

~ 나는 누군가를 마음속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의 기도 포인트입니다.

A. 판단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B. 사람의 부족함보다 가능성을 보게 하소서

C. 내 안의 마음의 기록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D.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하소서

E.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알려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